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과 예측요인 검증*

김 동 하

(성균관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학교결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개인, 가족, 또래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 유형별 비행행동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결석 중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고, 분류된 유형별 예측요인과 비행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저적응, 중적응, 고적응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별 예측요인과 비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교결석 청소년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이 발달결과에 중요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학교결석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학교결석, 학교적응 유형, 사회발달모델, 예측요인, 비행행동, 잠재프로파일분석

1. 서론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왔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및 접근들을 살펴보면, 크게 예방과 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입각해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방은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을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 통제는 문제행동이 일어난 후에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Hawkins and Weis, 1985: 74). 과거에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주로 통제적 접근에 치중했다

1)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하였음.

면, 최근에는 예방적 접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Hawkins and Weis, 1985: 75).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비단 청소년 개인 및 그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통제중심의 사후접근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외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인 중 하나로 학교결석이 주목받고 있다(Kearney, 2008a, 2008b)²⁾. 학교결석은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필수적인 기회들을 박탈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Thornton et al., 2013: 488). 이미 국외에서는 학교결석이 단기적으로는 다음 학년의 학업실패와 학업중도탈락의 강력한 예측요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반사회적 행동, 사회적 고립, 실업 등을 예측하는 초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Yeide and Kobrin, 2009: 3-4). 이에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학교결석의 이러한 막대한 장·단기적 사회비용에 주목하고 이를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간주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학교결석의 원인을 찾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Thornton et al., 2013: 489).

학교결석은 많은 관련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현상이다(Thornton et al., 2013: 489). 그동안 학교결석에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교결석의 부정적 영향을 검증하거나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예측요인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Kearney, 2008a: 257-258). 일차적으로 학교결석은 '학교와의 낮은 유대감',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비행이나 기타 반사회적 위험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Yeide and Kobrin, 2009: 4). 몇몇 연구들에서 학교결석을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음주, 흡연, 약물남용, 폭력, 위험한 성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밝히고 있다(Henry and Huizinga, 2007; Eaton et al., 2008; Kearney, 2008b).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일종의 '교육투자중단' 행위로 학업 성취 및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McCluskey et al., 2004: 217).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교결석의 예측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 및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요인으로는 성별(Veenstra et al., 2010; Sälzer et al., 2012; Thornton et al., 2013), 인종(Eaton et al., 2008),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요인(Kearney, 2008b) 등이 있고, 가족요인으로는 빈곤(Zhang, 2003; Veenstra et al., 2010), 부모의 교육수준(Ingul et al., 2012; Thornton et al., 2013), 가족갈등 및 해체(McShane et al., 2001), 부모의 양육태도(Reid, 2005; Brookmeyer et al., 2006; Kearney, 2008b) 등이 포함된다.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유대감(Shochet et al., 2006), 교사 및 교우관계(Lee and Burkam, 2003; Berkowitz and Benbenishty, 2012), 학교크기 및 구성 등의 구조적 특성(Brookmeyer et al., 2006) 등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또래 및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비행친구와의 교류(Henry and Huizinga, 2007),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Teasley, 2004)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법무부 청소년 사법 및 비행예방부(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에서는 2003년 국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학교결석의 감소를 규정한 바 있으며, 오늘날까지 다양한 학교결석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Henry and Huizinga, 2007).

지금까지 밝혀진 학교결석과 관련된 많은 예측요인들을 비추어볼 때, 학교결석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질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결석이 복잡하고 이질적인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많은 연구들에서 정작 학교결석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Maynard et al., 2012: 1672). 즉, 학교결석을 연구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교결석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학교결석 청소년을 암묵적으로 동질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학교결석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학교결석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을 추구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결석 청소년이라도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화 단위인 학교와의 유대 및 적응 정도에 따라 발달적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학교결석 청소년이 학교적응 및 유대에 따라 이질적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학교결석 청소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학교결석 청소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전무하며 국외 역시 많지 않은 실정이다(Dembo et al., 2012; Maynard et al., 2012). 특히 국내에서는 학교결석 자체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학교결석 문제에 관심을 덜 갖는 이유는 국내 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예방적 관점보다는 통제적 관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몇몇 국내 연구들에서 학교결석 중에 비사유적 결석에 해당되는 무단결석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한영희·조아미, 2008; 전구훈, 2013; 조미경·김희영, 2013), 이는 그동안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간과했던 예측요인 중 하나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시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단결석 청소년들은 대개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와 관련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Dembo et al., 2012: 158). 이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무단결석을 일종의 지위비행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통제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Yeide and Kobrin, 2009: 2). 특히 보다 보수적인 국내의 경우, 무단결석을 한 청소년은 이미 학교에서 몇 안 되는 문제아로 낙인찍혔을 가능성이 높아 비행의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무단결석만을 다룸으로써 이를 교정하고 통제해야 하는 행동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교결석 청소년 전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기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학교결석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교적응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질적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 관련된 예측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보다 표적화된 개입과 예방책 강구를 위한 첫걸음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Maynard et al.,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국내의 학교결석 청소년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에 대해 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방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규명하고, 유형별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예측요인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학교결석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청소년 문제의 예방적 접근에 대한 유용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1) 학교결석의 정의

일반적으로 학교결석(absenteeism)이란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Teasley, 2004: 117). 이와 같이 학교결석의 정의는 비교적 단순명료하지만, 학교결석의 이유와 범위에 대해서는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연구자 및 학교마다 학교결석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모나 교사의 허락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사유적 결석(excused absence)과 비사유적 결석(unexcused absence)으로 구분한다. 이중 비사유적 결석을 흔히 무단결석(truancy)이라고 부른다(Kearney, 2008b: 452).

학교결석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학교결석 전체를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관점(Chang and Remero, 2008; Eaton et al., 2008)과 비사유적 결석에 해당되는 무단결석에만 초점을 두는 관점(Gottfried, 2009)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무단결석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종의 지위비행으로 간주되고(Yeide and Kobrin, 2009: 2), 청소년이 이미 학교에 공공연하고 만성적으로 빠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Dembo et al., 2012: 158). 따라서 무단결석에 더 주목하는 연구들은 이를 하나의 외현화된 행동으로 규정하고 교정 및 처벌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Chang and Remero, 2008: 3; Maynard et al., 2012: 1672). 이는 예방적 접근보다는 통제적 접근에 해당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학교결석과 무단결석, 비행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고, 사유적이든 비사유적이든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무단결석이라는 중간단계를 지나 비행 등의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데 일관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Dembo et al., 2012: 157). Eaton 외(2008)는 사유적이든 비사유적이든 모든 종류의 결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행 등의 위험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잦은 학교결석은 위험행동으로 빠지는 조기경고사인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석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Chang과 Romero(2008) 역시 무단결석보다는 학교결석을 하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적절한 조기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결석은 청소년이 문제의 길로 접어드는 하나의 발달경로에서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비행의 예방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결석을 경험한 청소년 전체를 연구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청소년 문제의 예방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학교결석과 학교적응 유형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학교출석과 결석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earney, 2008b: 459).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의 학교결석 및 학업중도탈락이 학교유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hochet et al., 2006: 170; Kearney, 2008b: 459). 학교유대감이란 학생들이 학교환경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의된다(Goodenow, 1993: 80). 이러한 학교유대감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발달적 의미를 지닌다.

사회발달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³⁾의 관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요 사회화 단위와의 애착 및 유대 형성이 발달행동과 적응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이 때 아동이 주로 유대관계를 맺는 사회화 단위는 어느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성장·발달함에 따라 변한다. 즉,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까지는 가족이 주요 사회화 단위라면, 후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어 따라 학교가 주요 사회화 단위가 된다(Hawkins and Weis, 1985: 79). 주요 사회화 단위와의 유대는 곧 그 사회화 단위가 요구하는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며(Hawkins and Weis, 1985: 80), 이러한 특성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제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주요 사회화 단위와의 유대관계는 이러한 유대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의 기회, 상호작용의 정도, 상호작용을 발달시키는 기술, 상호작용 유지를 위한 강화라는 네 가지 과정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Catalano et al., 1996: 2-3). 여기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상호작용의 기회는 유대관계 발달의 충분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조건으로(Hawkins and Weis, 1985: 79), 아동 및 청소년은 최소한 주요 사회화 단위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출석은 곧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화 단위인 학교와의 유대감 형성의 필요조건인 상호작용 기회를 가지는 것에 해당되고, 반대로 학교결석은 이러한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발달모델에서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회와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Catalano et al., 1996: 2-3). 즉, 아동 및 청소년이 이러한 기회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대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이러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강화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Hawkins and Weis, 1985: 79-80). 이는 곧 청소년이 학교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결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정도는 발달적 결과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Maynard 외(2012)는 학교결석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학교적응 정도에 따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적응, 중간 적응, 낮은 적응, 만성적 결석의 네 개

3) 사회발달모델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대한 원인과 발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주요 범죄학 이론들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한 모델로, 비행에 대한 조기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었다(Catalano et al., 1996: 2).

유형을 도출하였다. 유형별로 음주 및 마리화나, 폭력, 도둑질 등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높은 적응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똑같이 학교결석을 경험한 학생들이라도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에 따라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다만 Maynard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다양한 차원에서 보지 못하였으며, 특히 학교결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화 단위인 학교와의 유대 및 적응 정도에 따라 학교결석 청소년의 발달경로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학교결석 청소년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직까지 학교결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국내의 경우, 국외와 비교해서 학교결석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의 다양한 차원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며, 각 유형에 따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예측요인들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연관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학교결석에 관심을 갖는 많은 연구자들 및 실천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 학교결석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

학교결석은 많은 관련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현상이다(Thornton et al., 2013: 489). 학교결석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기타 또래 및 지역사회 환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인종 등의 인구학적 요인들을 비롯해서,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문제 등이 포함된다.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Veenstra et al., 2010; Sälzer et al., 2012; Thornton et al., 2013). 또한 백인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에서 더 높은 결석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Eaton et al., 2008). 학교결석은 또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Kearney(2008b: 452)는 학교결석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학교결석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심각한 불안, 우울, 신체화, 행동장애, 주의집중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Ingul et al., 2012). 그러나 이와 동시에 몇몇 다른 연구들에서 학교결석 청소년 중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Kearney, 2008b).

가족요인으로는 빈곤,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갈등,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육에의 관여정도 등이 포함된다. 빈곤은 학교결석과 아주 광범위하게 연결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청소년들이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고 더 심각한 문제행동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Zhang, 2003; Veenstra et al., 2010). 부모의 교육수준도 중요한 예측요인 중 하나인데, 특히 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의 청소년이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gul et al., 2012; Thornton et al.,

2013). 반면 부의 교육수준은 모의 교육수준처럼 일관적으로 학교결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Ingul et al., 2012). 또한 가족갈등이나 가족해체를 경험한 청소년도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cShane et al., 2001). 학교 및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관여 정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참여와 유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rookmeyer et al., 2006; Kearney, 2008b). 반면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고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eid, 2005; Kearney, 2008a).

학교환경요인은 크게 청소년 개인의 학교적응능력과 학교의 구조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청소년 개인의 학교적응능력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느냐, 교사 및 교우들과 얼마나 잘 지내느냐 등이 포함된다(Chang and Romero, 2008: 4; Kearney, 2008b: 459). 특히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및 지지하는 학생들의 학교결석 및 학업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Burkam, 2003; Thornton et al., 2013). 또한 교우관계의 질도 학교출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우로부터의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거부하거나 결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Berkowitz and Benbenishty, 2012). 학교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학교나 학급의 크기가 클수록 학교 결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okmeyer et al., 2006). 또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 결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okmeyer et al., 2006).

또래 및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행친구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분위기, 이웃의 관심 정도 등이 포함된다. 즉, 비행을 많이 저지르거나 공격성이 높은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이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ry and Huizinga, 2007). 빈곤한 지역이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더 많이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웃과 관계가 밀접하고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 출석률이 높고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asley, 2004).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다양한 예측요인 외에, 학교결석은 또한 다양한 종류의 비행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결석을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음주, 흡연, 폭력, 약물중독, 위험한 성행동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Henry and Huizinga, 2007; Eaton et al., 2008; Kearney, 2008b). 또한 비행행동과의 이러한 관련성은 결석이 만성화될수록, 비사유적 결석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결석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질적인 요인들과 상호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많은 이질적인 요인들이 학교결석 청소년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결석 청소년이라도 학교적응 정도에 따라 예측요인의 영향은 달라질 것이며, 그에 따라 발달적 결과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결석 청소년들을 동질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학교결석 청소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욕구와 위험요인에 초점을 둔 표적화된 개입 전략의 수립을 어렵게 함으로써(Maynard et al., 2012: 1680), 학교결석 문제가 향후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애초의 예방적 목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결석 청소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질을 분류하고, 집단별로 예측요인과 비행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고 표적화된 개입방안과 예방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결석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예측요인과 비행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결석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또래 및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에 따라 비행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3차년도 데이터 중 중학생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연구대상자는 교육통계연보에 근거하여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2,351명의 중학교 3학년 중에 작년 한 해 동안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이상치를 제외한 477명의 학생들만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자로 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변수들에 대한 설명 및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변인을 측정할 척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변수들의 특성

구분	요인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변수설명
유 형 구 별 요 인	학교적응	학습활동(5) 학교규칙(5) 교우관계(5) 교사관계(5) 학업태도(7) 학업성적(11)	.918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성별		남성(0), 여성(1)
예 측 요 인	개인 요인	주의집중(7)	.776	
		공격성(6)	.790	
		신체화 증상(8)	.866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사회적 위축(5)	.880	
		우울(10)	.901	
	가족요인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고졸이하(0), 전문대졸이상(1) 고졸이하(0), 전문대졸이상(1)
또래 지역사회 요인	방입(4) 학대(4)	.754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836		
	또래애착(9)	.814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비행친구수(14) 지역사회인식(6)	.767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각 항목에 해당되는 수의 총합	
관 련 요 인	비행	경비행(2) 중비행(12)		각 항목에 대한 경험 횟수의 총합
		총결석횟수 무단결석유무		일 년 동안 결석한 횟수의 총합 무단결석 없음(0), 있음(1)

(1)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학교적응척도는 민병수(1991)가 이전 척도자료를 보완하여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을 한국어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이경상 외, 2011)에,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에게 학교에 대한 지각을 묻는 학업태도와 학생 개인의 교과목 평균성적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교적응척도에는 학습활동(5), 학교규칙(5), 교우관계(5), 교사관계(5), 학업태도(7), 학업성적(11)의 총 6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 중 학습활동에는 '학교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학교규칙은 '당번이나 1인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나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우관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등이 포함되며, 교사관계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태도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등의 총 11개 과목의 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본 연구자가 다른 요인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4점 척도로 변환한 평균점수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학습활동은 .744, 학교규칙은 .766, 교우관계는 .519, 교사관계는 .837, 학업태도는 .891, 학업성적은 .919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적응의 신뢰도는 .918로 나타났다.

(2) 비행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행행동의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3차년도 자료 중 비행에 관해 질문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경비행, 중비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보통 지위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럴 경우, 지위비행에 무단결석과 무단가출까지 포함되어 보수적인 국내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흡연과 음주 두 개 문항을 경비행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후 학교결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무단결석을 제외한 나머지 무단가출,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껄짜움,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헐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훔치기(뺑뺑기),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도박 등의 11개 문항을 중비행으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은 작년 한 해 동안의 경험 횟수를 질문한 것으로 각 항목의 총합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3)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은 선행연구에 따라 크게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또래 및 지역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성별과 심리·정서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 중 심리·정서적 요인에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포함한 주의집중(7), 공격성(6), 신체화 증상(8), 사회적 위축(5), 우울(10)의 5개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주의집중이 .776, 공격성이 .790, 신체화 증상이 .866, 사회적 위축이 .880, 우울이 .901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으로는 부와 모의 교육수준, 부모양육방식이 포함되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방임(4)과 학대(4)로 구성되며, 각각에 대한 신뢰도는 방임이 .754, 학대가 .836으로 나타났다.

또래 및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또래애착과 비행친구의 수, 지역사회인식이 포함되었다. 이 중 또래 애착에는 또래와의 신뢰, 의사소통, 소외(역코딩)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는 .814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의 수는 앞에 제시된 비행행동을 바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비행을 경험한 친구의 수를 총합으로 계산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지역사회인식은 청소년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느낌을 질문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767이다. 각각의 척도는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들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총결석일수와 무단결석유무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총결석일수는 지난 일 년 동안 결석한 횟수를 총합한 것이고, 무단결석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결석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대표적인 대상중심적 접근방법(person-oriented approach)으로 어떤 문제 및 특성과 관련된 개인의 반응패턴에 초점을 두고, 유사한 반응패턴끼리 집단을 구분하는 통계적 절차이다(Bergman and Magnusson, 1997).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잠재계층분석이 관측 자료로써 범주형 자료를 사용한다면,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는 연속형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Collins and Lanza, 2010).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총합하여 이를 연속변수로 보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는 모형을 기반으로 최적의 하위유형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한다(권재기·정미경, 2012). 대표적으로 잠재프로파일의 수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인 LRT검정(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과 조정된 LRT검정(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a)에 해당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BIC(sample-size-adjusted BIC), 마지막으로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엔트로피(entropy) 지수가 있다.

LRT검정은 확률에 기초해 k 개의 잠재집단을 가진 모형과 $k-1$ 개의 집단을 가진 잠재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두 개 모형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 기각여부로 모형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김사현·홍경준, 2010: 109). 따라서 p 값이 유의하면 k 집단의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 집단의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정보준거지수에 해당되는 AIC, BIC, aBIC는 모두 모형적합도와 간명도간의 균형에 의거해 각각의 모형을 비교하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도의 균형이 잘 맞는 것을 의미한다(Collins and Lanza, 2010). 엔트로피 지수는 각 하위유형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에 관한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Muthén and Muthén, 2013: 372). 그러나 학자들은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해석가능성, 집단의 크기, 이론적 연관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Nylund et 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정보준거지수, 엔트로피 지수와 더불어 유형별 사례수 및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결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유형을 확인한 후, 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행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은 Mplus 6.1을 사용하였고, 그 외 기술통계, 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은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1) 학교결석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대상자인 학교결석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교결석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학교를 결석한 청소년은 총 477명이었고, 그중 여학생이 266명(55.8%), 남학생이 211명(44.2%)을 차지하였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결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된 외국의 선행연구들(Veenstra et al., 2010; Sälzer et al., 2012; Thornton et al., 2013)과 다른 결과이다. 부모와 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각각 209명(50.7%), 243명(59.7%)으로 나타나 전문대졸 이상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친부모인 경우가 358명(7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모의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모두 무결석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변수들 간의 집단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인 학대와 방임의 경우 결석집단의 평균이 무결석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요인에 해당되는 학습활동, 학규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태도, 학업성적의 경우, 결석집단이 무결석집단에 비해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결석 청소년이 무결석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정서적 요인 중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 우울의 경우는 학교결석집단이 무결석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학교결석 청소년들이 더 많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만 사회적 위축의 경우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래 및 지역사회 요인에 있어서 또래애착은 학교결석집단이 무결석집단보다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친구의 수 역시 학교결석집단이 무결석집단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결석이 비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비행청소년들이 오히려 또래애착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인식의 경우, 학교결석집단이 무결석집단보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행동의 경우, 음주와 흡연에 해당되는 경비행과 기타 중비행에 있어서 학교결석집단이 무결석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오직 중비행의 경우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학교결석집단이 무결석집단보다 심각한 비행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이 본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학교결석 청소년과 무결석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비교

구분	결석집단		무결석집단		집단차이 검증 ¹⁾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211(44.2)	926(52.1)		8.434 ^{**}
	여	266(55.8)	853(47.9)		
부 교육수준	고졸이하	209(50.7)	696(43.1)		7.961 ^{**}
	전문대졸이상	203(49.3)	918(56.9)		
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243(59.7)	939(56.9)		1.089
	전문대졸이상	164(40.3)	711(43.1)		
부모구성	양친부모	358(78.0)	1536(88.5)		33.560 ^{***}
	기타	93(20.1)	181(10.4)		
	부모없음	8(1.7)	18(1.0)		
부모양육	학대	1.895(.732)	1.822(.712)		1.963 [*]
	방임	3.168(.563)	3.107(.554)		2.149 ^{**}
학교적응	학습활동	2.553(.556)	2.791(.514)		-8.454 ^{***}
	학교규칙	2.735(.543)	2.899(.531)		-5.941 ^{***}
	교우관계	3.029(.393)	3.085(.392)		-2.757 ^{**}
	교사관계	2.786(.651)	2.915(.621)		-3.990 ^{***}
	학업태도	2.787(.635)	2.941(.579)		-4.808 ^{***}
	학업성적	2.099(.844)	2.489(.896)		-7.488 ^{***}
	주의집중	2.527(.539)	2.437(.583)		3.031 ^{**}
심리·정서적 요인	공격성	2.308(.599)	2.177(.598)		4.257 ^{***}
	신체화 증상	2.209(.657)	2.043(.638)		5.019 ^{***}
	사회적 위축	2.256(.730)	2.265(.741)		-.245
	우울	2.073(.633)	1.957(.621)		3.597 ^{***}
또래 및 지역사회	친구에착	2.996(.474)	1.957(.621)		2.369 [*]
	비행친구수	4.304(10.64)	2.963(10.64)		2.443 [*]
	지역사회인식	2.396(.568)	2.514(.533)		-4.055 ^{***}
비행행동	경비행	.346(1.918)	.276(1.752)		.761
	중비행	1.251(5.662)	.526(3.879)		2.637 ^{**}

주: *: $p < .05$ **: $p < .01$ ***: $p < .001$

1) 연속형 변수는 t-test, 범주형 변수는 pearson χ^2 으로 검증함.

2)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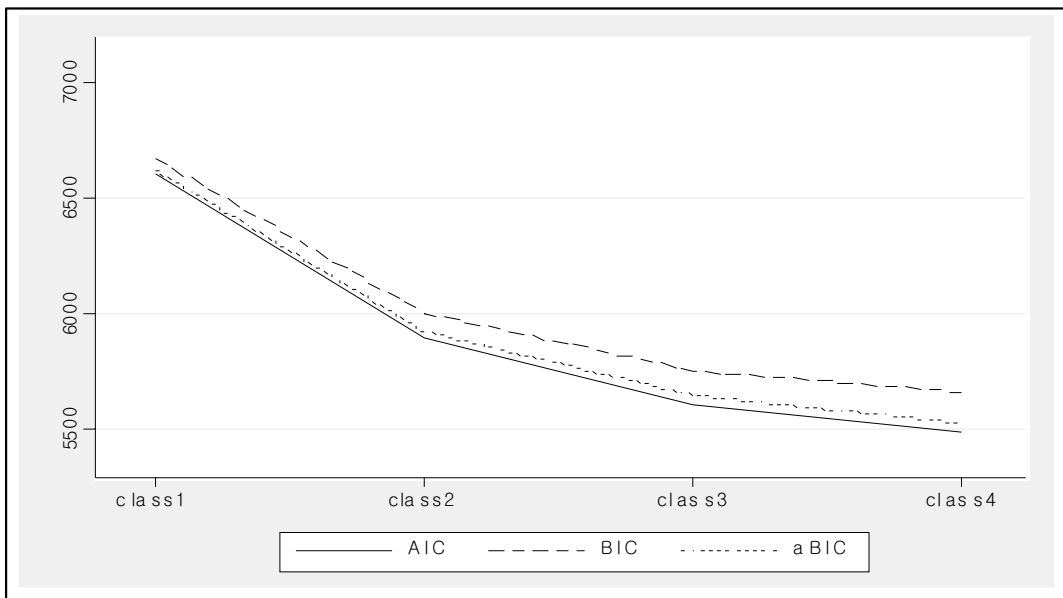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프로파일의 수에 따라 유형분류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유형수가 많아질수록 AIC, BIC, aBIC의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형3 이후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형3과 유형4의 정보준거지수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LRT와 aLRT검정 결과, 유형이 세 개인 모형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온 반면, 유형이 네 개인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유형이 세 개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트로피 지수 역시 유형이 세 개인 모형이 .804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모든 기준들을 고려해볼 때, 세 개 유형의 모형이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학교결석 청소년의 잠재프로파일 모형 검증

모형	Likelihood Ratio χ^2	df	AIC	BIC	Adjusted BIC	LRT: (p-Value)	adjusted LRT (p-Value)	Entropy
1	-3285.716	16	6603.432	6670.079	6619.297	-	-	-
2	-2206.919	19	4451.839	4531.141	4470.837	.0009	.0011	.686
3	-2169.047	26	4390.094	4498.504	4415.983	.0001	.0001	.804
4	-2143.219	33	4352.438	4490.035	4385.297	.0061	.0070	.785



〈그림 1〉 잠재유형 수에 따른 정보준거지수의 변화

3) 학교적응 유형별 특징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유형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4>와 <그림 2>는 분류된 잠재유형별 학교적응지표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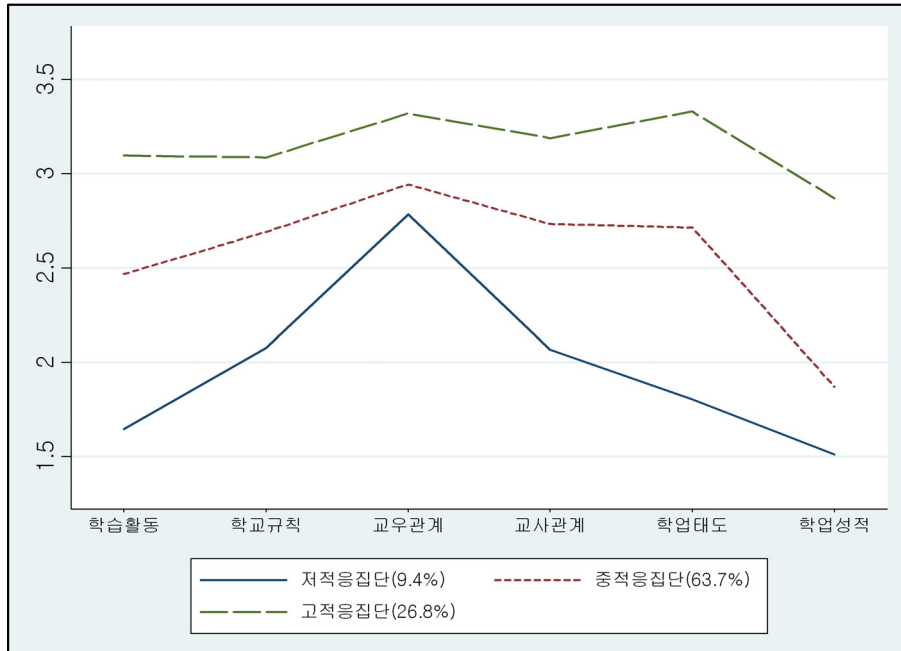
유형1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태도, 학업성적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유형으로서, 전체 연구대상자 477명 가운데 9.4%에 해당되는 45명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 유형을 '저적응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2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태도, 학업성적이 모두 평균을 약간 밑돌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그 범위도 1표준편차 미만 내에 속하는 유형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63.7%에 해당되는 304명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 유형을 '중적응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3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태도, 학업성적이 모두 평균보다 높으면서 그 범위가 1표준편차 범위 내에 속하는 유형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26.8%에 해당되는 128명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유형3을 '고적응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별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3에 해당되는 고적응집단은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적응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반면, 유형2의 중적응집단은 다른 지표에 비해 학업성적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1에 해당되는 저적응집단은 학습활동과 학업태도, 학업성적은 비교적 저조한데 반해 교우관계는 거의 중적응집단에 가까운 정도의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결석 청소년 중 낮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교우관계를 강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잠재유형별 학교적응지표의 차이

	유형1 (저적응집단) n=45(9.4%)	유형2 (중적응집단) n=304(64%)	유형3 (고적응집단) n=128(27%)	전체 n=477	F값
	M(SD)	M(SD)	M(SD)		
학습활동	1.646(.101)	2.466(.042)	3.096(.055)	2.553(.556)	346.57***
학교규칙	2.079(.110)	2.692(.031)	3.085(.068)	2.735(.543)	102.52***
교우관계	2.783(.091)	2.942(.022)	3.319(.055)	3.029(.393)	64.89***
교사관계	2.066(.117)	2.732(.043)	3.188(.080)	2.786(.651)	85.49***
학업태도	1.802(.099)	2.713(.049)	3.329(.058)	2.787(.635)	226.70***
학업성적	1.509(.093)	1.869(.074)	2.869(.117)	2.099(.844)	101.7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분류

4) 학교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학교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개인요인에서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저적응집단에 비해 고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중적응집단에 비해 고적응집단에 속할 확률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똑같이 학교결석을 한 경우라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정서적 요인에 있어서는 주의집중을 못하는 청소년은 고적응집단에 비해 중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신체화 증상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고적응집단이나 중적응집단에 비해 저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우울이 심한 청소년 역시 중적응집단에 비해 저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사회적 위축은 집단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요인의 경우, 부와 모의 교육수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확률이 높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고적응집단과 중적응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대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래 및 지역사회 요인에서 또래애착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또래애착이 좋은 청소년이 상위수준의 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행 친구 수의 경우, 비행친구가 많은 청소년이 고적응집단보다는 저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중적응집단에 비해서도 저적응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인식의 경우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밖에 총결석일수에 대해서는 집단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저적응집단에 속할수록 결석일수가 높은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단결석의 유무에 관해서는 저적응집단에 비해 고적응집단으로 갈수록, 또는 저적응집단에 비해 중적응집단으로 갈수록 무단결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적응집단과 고적응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적응집단에 속한 학교결석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무단결석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학교적응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검증

구분	변수	저적응집단		중적응집단		고적응집단		
		VS 고적응집단 B	승산비	VS 중적응집단 B	승산비	VS 고적응집단 B	승산비	
개인	성별	여성(ref.=남성)	1.526**	4.601	.770	2.160	.756**	2.130
	심리 정서	주의집중	-.019	.981	.104	1.110	-.123**	.884
		공격성	-.230**	.794	-.199**	.820	-.031	.969
		신체화 증상	.136**	1.145	.169***	1.184	-.033	.967
		사회적 위축	-.054	.947	.013	1.013	-.067	.935
		우울	-.070	.933	-.090*	.914	.020	1.021
가족	부모 교육 수준	부 대졸이상 (ref.=고졸이하)	.712	2.039	.558	1.747	.154	1.167
		모 대졸이상 (ref.=고졸이하)	.467	1.596	.071	1.073	.397	1.487
	부모 양육	방임	-.241**	.786	-.178*	.837	-.063	.939
		학대	.044	1.045	.105	1.111	-.061	.941
또래 및 지역 사회	또래	또래애착	.106	1.111	.073	1.076	.032	1.033
	관계	비행친구수	-.045*	.956	-.045***	.956	-.002	1.002
	지역 사회	지역사회인식	.109	1.115	.081	1.085	.028	1.028
통제 변수		총결석일수	-.041	.960	-.011	.989	-.030	.971
		무단결석유무 (ref.=무단결석 없음)	1.337*	3.807	1.128*	3.089	.209	1.232
		상수항	-4.294		-.988		-3.305	
Chi-square				129.777***				
-2Log Likelihood				605.595				
Pseudo R ² (Nagelkerke)				.378				

*: $p < .05$ **: $p < .01$ ***: $p < .001$

5) 학교적응 유형에 따른 비행행동의 차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분류된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별로 비행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의 등분산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등분산성 위반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중비교 방법인 Tamhane T2를 통해 집단 간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이영준, 2000).

분석결과는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음주와 흡연에 해당되는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에 있어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적응집단에서 경비행과 중비행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적응집단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고적응집단이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저적응집단이 중적응집단과 고적응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비행과 중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학교결석 청소년이라도 학교적응 유형에 따라 비행행동과의 연관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에 따른 비행행동의 차이

종속변수	잠재유형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경비행	고적응집단(a)	.141	1.253	7.569***	a,b<c
	중적응집단(b)	.293	1.192		
	저적응집단(c)	1.378	4.919		
중비행	고적응집단(a)	.180	.951	6.582***	a,b<c
	중적응집단(b)	1.346	5.972		
	저적응집단(c)	3.667	5.662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학교결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개인, 가족, 또래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함과 동시에 유형별 비행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결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즉, 모든 학교적응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적응을 보인 고적응집단, 대부분의 학교적응지표에서 평균수준의 적응을 보인 중적응집단, 모든 학교적응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적응을 보인 저적응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저적응집단의 경우 다른 학교적응지표는 중적응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데 반해 교우관계는 중적응집단과 근소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계로부터의 따돌림이나 갈등이 학교결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기존의 선행연구(Berkowitz and Benbenishty, 2012)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학교결석 청소년 중 낮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교우관계를 강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단순히 교우관계의 낮은 신뢰도로 결과가 왜곡되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도출된 세 개의 학교적응 유형을 바탕으로 집단별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 및 지역사회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요인으로는 성별과 심리·정서적 요인 중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고적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심리·정서적 요인으로는 주의집중을 못할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이 많을수록, 우울할수록 하위의 적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학교결석의 관련성을 설명한 기존의 연구들(Kearney 2008b; Ingul et al., 2012)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족요인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저적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대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래관계의 경우, 비행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저적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행동을 하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청소년이 더 많이 결석하고 더 쉽게 위험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Henry and Huizinga, 2007).

셋째, 저적응집단에 속할수록 무단결석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적응집단은 이미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저적응집단에 대한 접근이 중적응집단이나 고적응집단과는 차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학교결석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별로 비행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저적응집단의 학교결석 청소년이 중적응집단과 고적응집단에 소속된 청소년에 비해 음주 및 흡연 등의 경비행을 비롯하여 기타 심각한 중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를 결석한 청소년이라도 학교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행행동과의 연관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학교결석 청소년을 막연하게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결석 청소년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이 발달적 결과에서 미묘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학교결석 청소년이 모두 유사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유사한 발달 궤적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암묵적인 가정은 학교결석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표적화된 예방적 개입을 수립하는 데 큰 장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높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약 30%의 고적응집단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결석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이들을 위험집단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접근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약 60%에 해당되는 중적응집단의 경우, 아직까지는 위험집단으로 분류될 수 없으나, 고적응집단과 저적응집단의 중간적 위치에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고적응집단과

저적응집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예방적 개입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약 9%의 학교결석 청소년은 이미 위험요인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비행행동과의 관련성도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개입보다는 집중적인 관리와 통제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학교결석 청소년은 그 유형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그에 적절한 개입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학교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학교결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석 유형과 패턴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Veenstra et al., 2010). 반면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학교결석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외에 비해 국내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이 예방적 관점보다는 통제적 관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방적 접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제의 초기 경고 사인이 될 수 있는 학교결석에 대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 및 학교교사, 연구자, 정책입안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상 학교결석을 경험한 청소년을 모두 연구대상자로 보고 분석에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학교결석 청소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결석의 이유와 결석일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유적 결석과 비사유적 결석(무단결석)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교사 및 부모 등의 다중 정보체계(multi informant)를 활용한 정확한 자료수집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패널자료에서도 학교결석의 유무를 단순히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결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에 의거해서 학교결석 청소년의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예측요인들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모두 특정 시점에 한하여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결석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달과정을 거쳐 부정적 결과 혹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발달체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학교결석 청소년을 이해하고 나아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학교결석에 주목하고, 학교결석 청소년을 탐색적으로 유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예측요인들과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결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기존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표적화된 예방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재기·정미경, 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 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중단적 분석: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7-167.
- 김사현·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I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영준, 2000, 『분산분석의 이해』, 서울: 석정.
- 전구훈, 2013, “무단결석 학생의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이용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미경·김희영, 2013, “무단결석과 청소년 비행경험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03-125.
- 한영희·조아미, 2008, “무단결석 청소년의 생활과 진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3): 29-53.
- Bergman, L. R., and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02): 291-319.
- Berkowitz, R., and Benbenishty, R., 2012, “Perceptions of teachers’ support, safety, and absence from school because of fear amo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2(1): 67-74.
- Brookmeyer, K. A., Fanti, K. A., and Henrich, C. C., 2006, “Schools, parents, and youth violence: A multilevel, ecological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4): 504-514.
- Catalano, R. F., Kosterman, R., Hawkins, J. D., Newcomb, M. D., and Abbott, R. D., 1996, “Modeling the etiology of adolescent substance use: A test of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Journal of Drug Issues*, 26(2): 429.
- Chang, H. N., and Romero, M., 2008, *Present, Engaged, and Accounted for: The Critical Importance of Addressing Chronic Absence in the Early Grades*,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Columbia University.
- Collins, L. M., and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Jersey: John Wiley and Sons.
- Dembo, R., Briones-Robinson, R., Ungaro, R. A., Gullledge, L. M., Karas, L.M., Winters, K. C., Belenko, S., and Greenbaum, P. E., 2012, “Emotional psychological and related problems among truant youths: An exploratory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0(3): 157-168.
- Eaton, D., Brener, N., and Kann, L. K., 2008, “Associations of health risk behaviors with school absenteeism. Does having permission for the absence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School Health*, 78(4): 223-229.
- Goodenow, C., 1993, “The psychological sense of school membership among adolescents: Scale

- development and educational correlates”, *Psychology in the Schools*, 30(1): 79-90.
- Gottfried, M. A., 2009, “Excused versus unexcused: How student absences in elementary school affect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31(4): 392-415.
- Hawkins, J. D., and Weis, J. G., 1985,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nquency preven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6(2): 73-97.
- Henry, K. L., and Huizinga, D. H., 2007, “School relat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ruancy among urban youth placed at risk”,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8(6): 505-519.
- Ingul, J. M., Klöckner, C. A., Silverman, W. K., and Nordahl, H. M., 2012, “Adolescent school absenteeism: Modelling social and individual risk factor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7(2): 93-100.
- Kearney, C. A., 2008a, “An interdisciplinary model of school absenteeism in youth to inform professional practice and public polic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0(3): 257-282.
- _____, 2008b, “School absenteeism and school refusal behavior in youth: A contemporary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451-471.
- Lee, V. E., and Burkam, D. T., 2003,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 role of school organization and structur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0(2): 353-393.
- Maynard, B. R., Salas-Wright, C. P., Vaughn, M. G., and Peters, K. E., 2012, “Who are truant youth? Examining distinctive profile of truant youth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1: 1671-1684.
- McCluskey, C. P., Bynum, T. S., and Patchin, J. W., 2004, “Reducing chronic absenteeism: An assessment of an early truancy initiative”, *Crime and Delinquency*, 50(2): 214-234.
- McShane, G., Walter, G., and Rey, J. M., 2001,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ith school refus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 822-826.
- Muthén, L. K., and Muthén, B. O., 2013, *Mplus User's Guide* (Version 6.1)[Computer software and manual], Los Angeles: Muthén and Muthén.
- Nylund, K. L., Asparouhov, T., and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Reid, K., 2005, “The causes, views and traits of school absenteeism and truancy: An analytical review”, *Research in Education*, 74(1): 59-82.
- Sälzer, C., Trautwein, U., Ludtke, O., and Stamm, M., 2012, “Predicting adolescent truancy: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different aspects of instructional quality”, *Learning and Instruction*, 22: 311-319.
- Shochet, I. M., Dadds, M. R., Ham, D., and Montague, R., 2006, “School connectedness is an underemphasized parameter in adolescent mental health: Results of a community predic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2): 170-179.
- Teasley, M. L., 2004, “Absenteeism and truancy: Risk, protection, and best practice implications for school social workers”, *Children and Schools*, 26(2): 117-128.
- Thornton, M., Darmody, M., and McCoy, S., 2013, “Persistent absenteeism among Irish primary school pupils”, *Educational Review*, 65(4): 1-14.

- Veenstra, R., Lindenberg, S., Tinga, F., and Ormel, J., 2010, "Truancy in late elementary and early secondary education: The influence of social bonds and self-control—the TRAILS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4): 302-310.
- Yeide, M., and Kobrin, M., 2009, *Truancy Literature Review*.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Zhang, M., 2003, "Links between school absenteeism and child poverty", *Pastoral Care in Education*, 21(1): 10-17.

Identifying Latent Profiles in School Adaptation of School Absentee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Kim, Dongha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absenteeism, one of the early warning signs of behavioral problems, has been known to be a complex and heterogeneous problem. However, much of the research assumes that school absentee adolescents comprise a homogeneous group. This study explored the heterogeneity of school absentee adolescents, based on school adaptation, to provide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school absenteeism and examined predictive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each typology of school absentee adolescents.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ample 477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reported absent in the previous year from the 3rd wave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d ANOVA was also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As a result, three profiles were identified: low, middle, and high adaptive group. Group membership was found to be associated differentially with gender, mental health, parenting neglect,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t behaviors. These findings propose more specific and targeted interventions designed to meet the needs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 typologies of school absentee adolescents.

Key words: school absenteeism, school adaptation, social development model, predictors, delinquent behaviors, latent profile analysis

[논문 접수일 : 14. 02. 28, 심사일 : 14. 03. 25, 게재 확정일 : 14. 07. 15]